

# Japan Weekly Digest

2012. 10. 13 ~ 2012. 10. 19

① 주간 경제 초점

- 일본기업의 미국 유력기업 매수 전략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신일철주금, 신흥국에서 최첨단강판으로 승부
- 일본기업의 아세안투자 가속

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① 주간경제초점 : 일본기업의 미국 유력기업 매수 전략

### □ 소프트뱅크의 미국 스프린트사 매수

- 15일 소프트뱅크가 미국 휴대전화 분야에서 제 3위의 기업인 스프린트넥스텔을 매수하기로 발표. 매수가 완료되면 계약건수가 미국과 일본에서 약 9,600만건으로 NTT도코모의 1.6배.
- 이번 매수로 단말기나 설비조달면에서는 유리해지나 다액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로운 성장전략과 손정의 사장의 경영수완이 기대되고 있음.
- 이미 월컴을 산하에 거느리고 이억세스도 경영통합한 소프트뱅크로서는 여기 에다 스프린트를 추가함으로써, 중국 차이나모바일이나 미국 버라이즌와이어리스에 이어 세계 제 3위의 휴대전화회사로 자리를 굳히게 됨.
- 그러나 매수에는 200억달러(약 1조 5,700억엔)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 소프트뱅크는 영국 보더폰 일본법인 매수로도 2조엔의 부채(이자 포함)를 안고 있었으나 미국 애플사 제품인 아이폰의 인기로 재무구조가 개선됨.
- 소프트뱅크가 매수전략을 가속시킨 배경에는 세계표준의 새로운 고속통신규격 「LTE」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음. 앞으로 세계적인 규모로 인프라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기술의 표준화나 설비조달 등에서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전략임.
- 휴대전화시장에서는 제 3세대 규격이 등장한 2000년경에도 세계적인 규모의 재편이 잇따랐음. 그 당시는 NTT도코모가 i모드를 확대하려고 네델란드의 KPN모바일이나 미국 ATT와이어리스 등에 2조엔 가까이 출자함.

### □ 해외시장에서의 정상을 목표로 한 전략

-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소프트뱅크는 5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스프린트를 완전자회사화함으로써, 동사를 축으로 해외에서 본격적인 통신사업에 나선다는 것임.
- 일본에서 도코모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정상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 일본의 휴대전화시장은 포화상태에 가깝고 국내 사양에 고집한 결과, 폐쇄적인 시장이 되어버림. 스마트폰이나 LTE의 등장은 일본기업이 해외에 재진출

하는 호기인 만큼 소프트뱅크의 전략은 평가할 만하다고 일본경제신문은 논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매수가 바로 일본의 통신기기메이커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소프트뱅크의 단말기나 설비는 해외기업이 중심인 바, 일본기업들에게도 동사를 해외로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 세계 최대부품메이커 미스미도 북미 최대기업 매수

- 일본경제신문(10월17일)에 의하면, 금융부품의 세계 최대기업인 일본의 미스미그룹이 북미 최대 금형부품메이커를 매수. 미국·캐나다의 유력 메이커를 산하에 거느린 지주회사를 2억달러(약 157억엔)에 매수
- 매수대상 기업은 금형부품메이커의 미국 데이턴과 캐나다의 지·앵커·던리(AD)를 산하에 거느린 코넬·인더스트리얼·툴·코퍼레이션. 이번주내에 주식의 양도계약을 펀드사측과 체결기로 발표. 미스미는 이번 매수로 데이턴의 전사업과 AD의 금형부품사업을 손에 넣게 됨.
  - 데이턴은 북미지역에서 최대 금형부품메이커이며, AD 또한 미국외에 유럽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매수대상 사업의 연간매출액은 150억엔 정도
  - 미스미나 데이턴이 취급하는 금형부품은 금형의 토대부분을 제외한 편이나 코일 등 금형제조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품임.
- 미스미는 최대 금형부품메이커이나 사업이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는 편임. 이번 매수로 미국·유럽에서의 매출액을 3배 가까이 확대하고 해외생산거점도 크게 늘릴 계획임.
- 일본의 모노즈쿠리를 지탱해 온 금형산업은 최근 자동차메이커들이 내제하기 시작한데다, 중국메이커들이 대두함에 따라 열세에 몰리고 있음.
- 그러나 미스미는 금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품이 주력으로, 40만점 이상의 제품이나 통상 3일이라는 짧은 납기를 거의 확실하게 지키는 경영모델에 의해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음.
  - 피매수기업측에서도 앞으로 동일한 수법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제조업과의 거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

## □ 평가

- 소프트뱅크와 미스미의 미국 유력·굴지기업 매수는 최근 추락상을 보이는 가전, 반도체 등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력 산업·기업의 또 다른 단면을 반영하고 있음.
- 금형부품산업과 IT·통신산업은 일본의 자본재·부품산업을 지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들 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매수하여 일본의 핵심역량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물론, 특히 소프트뱅크의 경우 매수에 따른 엄청난 자금부담 등의 리스크가 따르는 한편, 일본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미국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기업들에 의한 일본기업의 매수(미국 마이크론사의 일본 엘피다 매수, 미국 KKR의 일본 르네사스 인수전 참여 등)도 이어지고 있기는 함.

##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 신일철주금, 신흥국에서 최첨단강판으로 승부

- 신일철주금(주)이 2013년에 태국,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강도 최고수준의 자동차용 강판 생산을 개시. 연비향상을 위한 차체경량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첨단소재를 현지생산으로 전환.
- 일본계 자동차메이커들이 신흥국에서 증산 및 부자재의 현지조달을 확대하고 있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10월 1일 구 신일본제철과 구 스미토모금속이 합하여 탄생한 신일철 주금은 신흥국에서의 생산체제 확충을 중점적인 목표로, 인력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배분.
- 태국과 멕시코에서는 건설중인 자동차용 강판을 최종 마무리하는 공장에서 고성능 강판을 생산, 2013년에 가동 예정.
-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재료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공급. 브라질에서는 출자선의 우지미너스(주)와의 기존 합작공장을 활용, 3개 공장 전체로 생산능력은 연간 약 180만톤. 고성능강판의 생산량은 이 중 수천만톤 규모에 달함.
- 신일철주금이 현지생산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고강도강판보다 1.6배의 강도를 지닌 초고장력강판. 기존 강판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경우, 10~20% 경량화할 수 있게 됨. 최신 저연비자동차에서는 이 고성능 강판이 강판사용량의 5~10%를 점하고 있음.
- 일본계 자동차메이커들은 신흥국의 자동차수요 증가나 엔고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신흥국으로의 생산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음.
- 멕시코에서는 닛산자동차나 혼다, 마쓰다가 브라질에서는 닛산이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미쓰비시자동차는 태국을 저연비소형차의 양산거점으로 설정
- 신흥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필요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수출하여, 현지생산은 종래형의 고강도강판에 그침. 자동차생산거점의 신흥국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지 생산계획 등에 따라 유연하게 강판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 자동차용 강판은 일본 철강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나 한국 포스코나 중국의 보강그룹 등 신흥국의 대형 철강메이커들도 기술면에서 추격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

- 신일철주금의 강판 자체의 성능에 더하여,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한 공급망 준비가 자동차메이커들의 사용여부에 키가 되고 있음.
- 신일철주금의 자동차용강판 전체 생산능력은 연간 850만톤. 멕시코 등의 신 공장건설로 해외생산능력은 약 20% 이상 증가한 680만톤. 신흥국에서도 고성능 강판을 생산함으로써 양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세계생산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셈임.

## □ 일본기업의 아세안투자 가속

- 일본기업들이 직접투자대상국을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음. 대아세안 투자는 2012년 2/4분기에 전년동기비 40%이상 증가한 3,800억엔으로 중국(3,000억엔)을 상회
- 특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아세안 각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이 많음. 중국의 임금상승이나 일·중관계의 냉각을 배경으로 진출대상국을 아시아 지역 전체에 분산시키는 이른바 「차이나+1」 움직임이 본격화될 듯
- 2011년 일본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전년의 2.4배인 1.5조엔으로 증가, 2년 연속 대중 투자를 상회.
- 아세안에 대한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는 1990년대에도 활발했음.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대미국·유럽 수출의 생산거점으로 투자한 당시와 비교하여 지금은 투자기업, 진출선 모두 다양화됨.
- 무엇보다도 아세안 각국에서 자동차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임.
- 진출대상 업종에서는 소매나 외식 등 소비관련, 진출대상국은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이 많음.
- 아지노모토, 큐피, 도토루·레스홀딩스 등이 최근 아세안국가에 공장 및 점포를 설립하는가 하면, 토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메이커들도 공장을 신설
- 한편, 중국은 센카쿠제도 문제에 따른 반일데모 등도 포함, 일본기업들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투자처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반다이(주)는 주력 생산거점인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17년만에 자사공장을 필리핀에 건설. 생산이전으로 3년간 13억엔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전망
- 웨미리마트는 앞으로 1년, 중국에서의 입점을 억제하는 한편, 10월에 1호점을 낸 인도네시아에서는 앞으로 5년간 500개 점포를 개설할 계획임.

###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도토루 日 레 스홀딩스	2012.10.13	음식점	필리핀	직접투자/파스타전문점 개설 (제 1호점), 2014년 2월까지 10개점 이상 확대
히노자동차	2012.10.13	자동차	말 레 이 시 아 /MBMR	자본제휴/합작생산자회사 신 설, 58% 출자
닛산	2012.10.14	자동차판매	인도	직접투자/판매점 확대, 중국리 스크 분산차원에서 2016년까 지 현재의 4배인 300개 이상 점포 운영
소프트뱅크	2012.10.15	IT·통신	미 국/스프린트 넥스텔	직접투자/기업매수, 매수가액 200억달러, 주식의 70%취득
산오우공업	2012.10.16	자 동 차 용 배 관부품	러 시 아/메트로 프 러 덕 시 아 (MP)	직접투자/배관사업 매수, 매수 가액(신규설비투자 포함)약 30 억엔
미스미	2012.10.17	금형부품	미 국/데 이 턴, 캐나다/지앤커· 던리	직접투자/미국 투자펀드로부 터 매수, 매수가액 약 157억 엔
미쯔비시 상사	2012.10.17	지열발전	인도네시아/스 타에너지	직접투자/주식 20%(약 160억 엔)취득
아사히 그룹 홀딩스	2012.10.17	청량음료	말레이시아	직접투자/생산능력 30%증강, 투자규모 10억엔
중부약품	2012.10.17	드럭스토어	중국	직접투자/ 1호점 개설
닛도우전공	2012.10.18	자 동 차 용 공 업용타이프	브라질	직접투자/공장신설, 투자규모 약 14억엔
닛키	2012.10.18	에 칠 렌 생 산 설비	사우디/사우디 아람코	수주/석유화학설비 수주, 수주 규모 약 2,000억엔
토요타자동차	2012.10.19	디젤엔진	태국	직접투자/생산능력 증강, 투자 규모 약 400억엔
JX일광일석 에너지/삼양 화성공업	2012.10.19	합 성 고 무 용 첨가제	태국/사이암세 멘트그룹	자본제휴/생산능력 2만톤 규 모의 합작회사 설립
NEC	2012.10.19	리튬이온 축 전시스템	이탈리아/에넬	수주/수주규모, 수억엔

\* 자료: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

####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 (1) 『네트워크산업에 관한 경쟁정책 : 일본·유럽·미국의 이윤압착(margin squeeze) 규제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10월13일

\*출처:<http://www.jftc.go.jp/cprc/reports/cr-0212.pdf>

- (2) 『TPP·한중일FTA·RCEP의 금후 향방』 국제무역투자연구소, 10월13일

\*출처:<http://www.iti.or.jp/column005.htm>

- (3)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과 엔/달러환율에의 영향』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10월19일

\*출처:[http://www.sc.mufg.jp/report/ue\\_report/pdf/ue121017.pdf](http://www.sc.mufg.jp/report/ue_report/pdf/ue121017.pdf)

- (4) 『ASEAN·일본을 둘러싼 경제연대 확대』 다이와종합연구소, 10월13일

\*출처:<http://www.dir.co.jp/souken/research/report/overseas/emg/12101001emg.pdf>